

# J.J.

MONTHLY  
LIFE DESIGN  
MAGAZINE

MEMBERSHIP  
MAGAZINE OF  
GRAND HYATT SEOUL

JULY  
2015  
+  
NO.  
120



KOH SANGJI: DO THAT —

— 아이슬란드에선 송고한 자연과 마주한다  
TIME TO LEAVE ICELAND —

예술 놓인 곳 REJECT SYSTEM —

— PREOCCUPIED GRAPHY

HIDDEN SELFIE  
온전한 자화상 —

# MAGAZINE



# THE MATERIAL UNIVERSE

## 철의 노래

많은 작가가 재료의 물성에 집착한다.

그 재료의 기능을 취하고 그 외 사회적 맥락이나 상징은 배제한다.

재료를 깊이 보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예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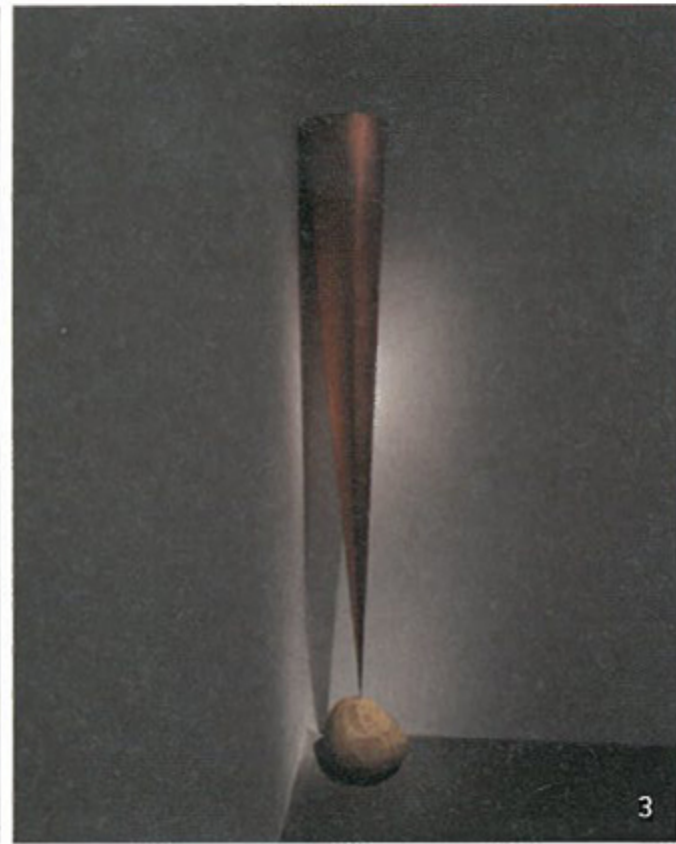
철, 구리, 돌처럼 인류가 예술을 발전시키기 전부터 존재했던 재료는 문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재료 이상의 사회적 맥락을 담는다. 하지만 작가 대부분은 자신의 의도를 잘 표현하기 위해 재료를 선택하는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면 예술가는 점점 재료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지폐나 일용품을 통해 맥락을 만들 듯 재료 자체에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다.

멕시코의 설치 작가 가브리엘 쿠리의 작품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경계에 있다. 설치 방식에 따라 재료의 성질이나 맥락이 달라지는 해석의 다양성을 표현한다. 〈Looping Trajectory through Collapsing Mountain 01-01〉은 알루미늄 지지대를 유색 알루미늄판으로 덮은 형태이다. 철골 구조물을 휘감는 알루미늄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재료의 특징을 나타낸다. 철의 양면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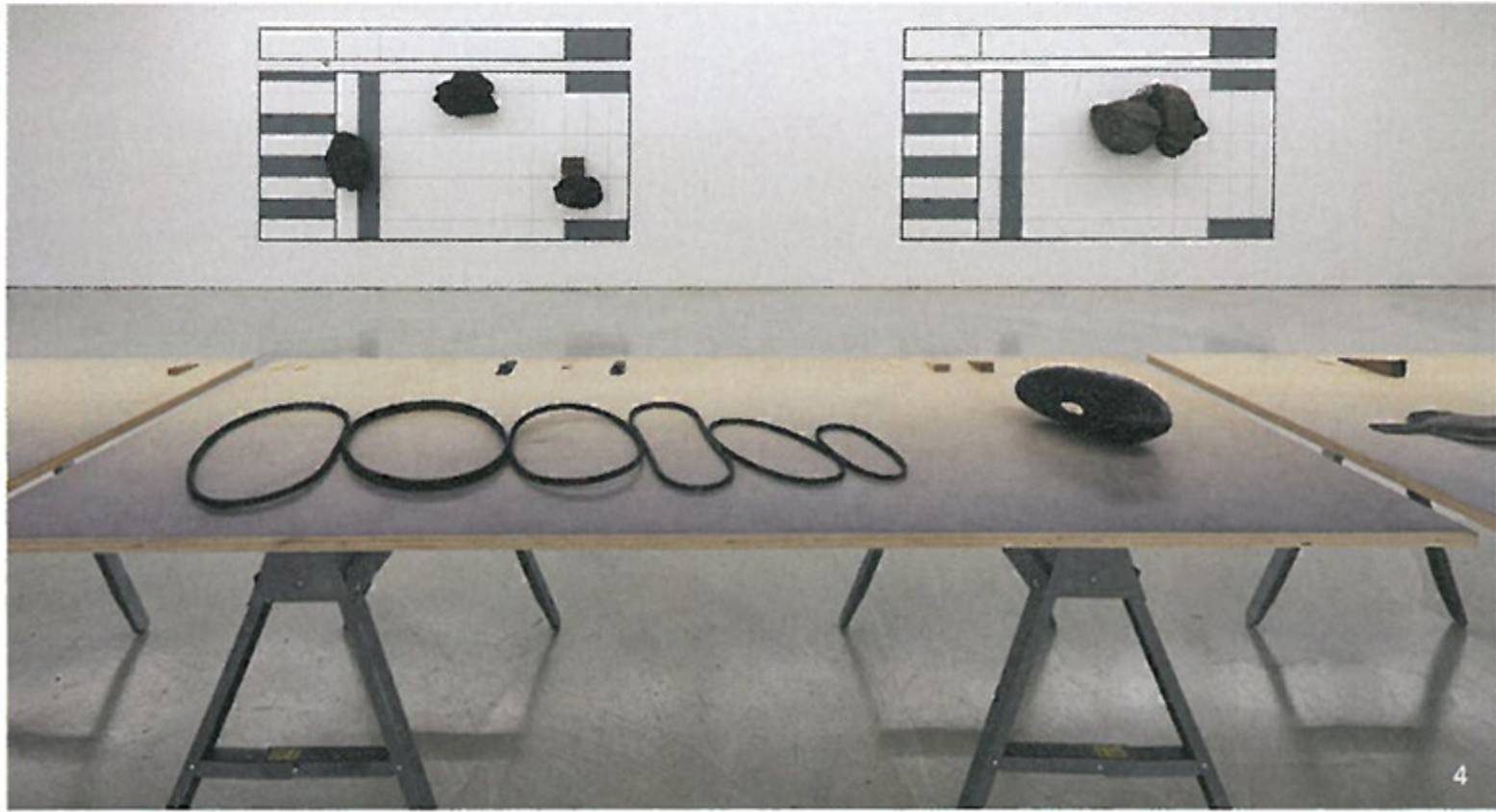
인도의 현대 미술 작가 탈루 엘 엔의 작품 〈Threshold〉는 끊임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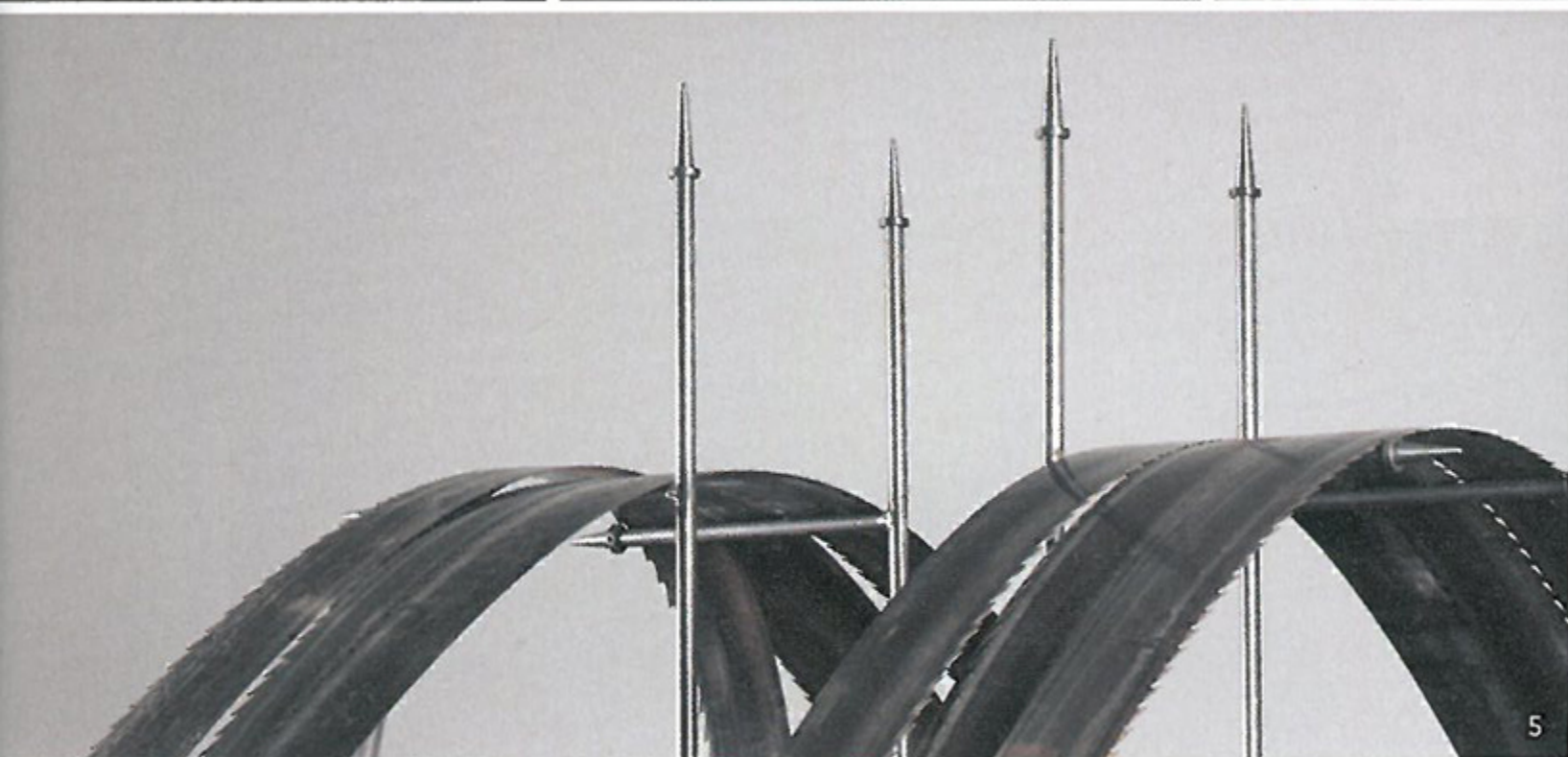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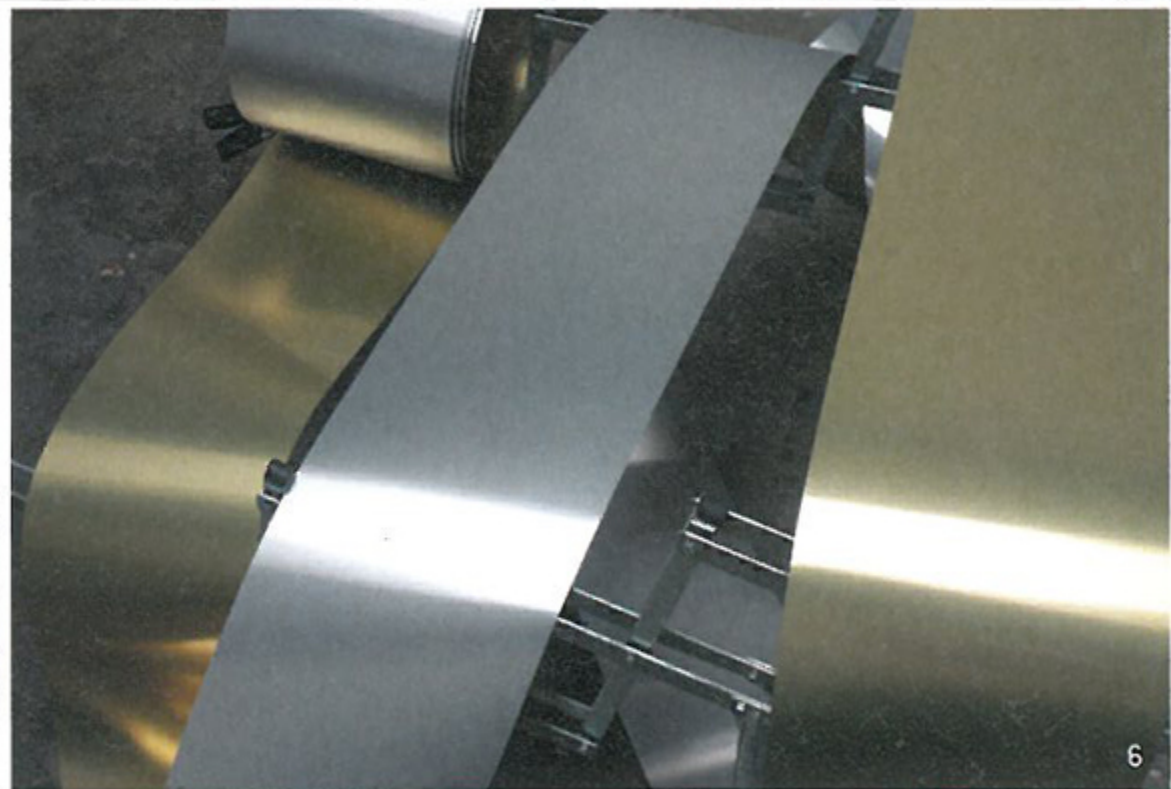
3



4



5



6

이 철판을 갈아 톱날을 생산한다. 수십 미터의 철판이 전시 공간에 어지럽게 걸려 있고, 작품은 공장처럼 철판의 한쪽 면을 갈아 톱날을 만든다. 생산된 톱날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소모되는 현재의 시간을 상징한다.

일본 작가 케이지 우에마츠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철을 관찰했다. 작가는 중력이나 만유인력처럼,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과 질서에 대해 집착했다. 그의 2000년대 이후 작품은 물질과 자연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간에 관한 고찰로 이어졌고,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라는 질서를 다룬다. 설치 작품 <부유하는 형태 - 보이지 않는 축>은 5m 크기의 구리 타원 조각이 천장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 조각과 연결된 줄 반대편엔 큰 바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둘은 평형상태에 있다. 관객은 이 둘 관계에서 힘의 긴장감을 느낀다.

- 1 Keiji Uematsu, Floating from- Invisible axis, 2001, 구리, 돌, 940×100×450cm
- 2 Keiji Uematsu, 잘못 사용된 책상 - 물, 2015, 철제 책상, 유리컵, 물, 180×70×70cm
- 3 Keiji Uematsu, Corner Piece - Inversion - Vertical, 1991, Sculpture Cuivre et pierre, 230×45×45cm
- 4 Gabriel Kuri, Punctuation Matrix, 2015, at the front and Probability Chart K1 (2015) and Probability Chart K2 (2015) on the back wall
- 5 Tallur.L.N., Threshold, 2015, 혼합재료, 약 15m
- 6 Gabriel Kuri, Looping trajectory through collapsing mountain 01-01, 2015, Aluminum flashing atop collapsible stands, clamp, 99×148×115cm